



창문을 가린 아이들

관객참여 토론연극

2025.07.26(토), 13:00/15:00 (2회) 100분
- 13:00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홀
- 15:00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홀 온라인 관객 참여(ZOOM)

온라인 관객 참여의 경우
QR을 통해 사전신청 부탁드립니다.
참여 시 종이컵 지참부탁드립니다.



주최주관 곡성문화재단 마세일

"청소년 자살 문제를 마주하고,

함께 답을 찾는 토론연극"

“저희 학교는 아무 문제 없어요?”

한국은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 1위.

지금도 하루에 한 명 이상의 아이가 생을 포기합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는 걸까요?

이 작품은 ‘괜찮은 척’하는 교실의 풍경 속에서

한 아이의 사라짐을 통해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질문을 정면으로 던집니다.

사라진 미나, 그 아이는 왜 교실을 떠났을까?

“누구의 잘못일까?”

“어떻게 해야 제2의 미나가 생기지 않을까?”

《창문을 가린 아이들》은 단순한 관람을 넘어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살아있는 연극입니다.

등장인물의 선택에 질문을 던지고,

새로운 해결의 실마리를 관객이 제안합니다.

"관객이 완성하는 공연"

청소년, 교사,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 모두의 무대

연극을 활용한 다양한 참여 방식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한 밀도 높은 토론 구성

출연진



이윤화
선생님



김현
김두진, 대세아빠



허연주
이미나, 선주엄마



안주현
정대세



송유빈
박선주



손혜정
진행자

예술감독·작가 | 손혜정 연출 | 이윤화 영상 | 김연준, 정대용 조연출 | 고문정 목소리·손출연 | 김주영
교육감독 | 노시구, 조명진, 고봉주 작곡 | 이영지, 이조은 홍보·인쇄물 | 최보란

"불러주세요! 어디든 달려갑니다!"

마실은 2012년부터 청소년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토론연극을 창작·진행해 온 전문 단체입니다.

이번 공연은 초등학생부터 중·고등학생, 학부모, 교사,

예술교육 전문가들의 피드백을 바탕으로

비폭력 대화법을 접목시켜 완성된 작품입니다.

✓ “매우 만족”

✓ “꼭 필요한 공연”

✓ “다시 시작할 용기를 주는 공연”

그 동안의 평가를 바탕으로 창작된 신작은

학교, 지역 기관, 청소년 단체 어디든 찾아가합니다.

함께 걱정하고, 함께 방법을 찾고 싶다면

지금 바로 마실에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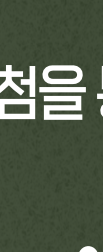
청소년을 위한 이 고민,

이제 함께 무대 위에서 이야기해요.

공연문의 및 접수처

happy@masil.biz / dndsla66@naver.com

극장안내



곡성레저문화센터 동아아트홀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곡성로 855)

후기 작성 이벤트

추첨을 통해 10분께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참여자에 한해 추첨이 진행 됩니다.
- 필요에 따라 당첨자분께 인증 사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단체의 홍보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아래 QR을 통해 링크에 접속하여 후기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